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 : 마가복음 5:21-43

요절 : 마가복음 5: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

19세기의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며 절망은 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심리학자이자 목사인 노만 빈센트 펄(Norman Vincent Peale) 박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의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 일에 관한 것이고 50%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것이고 단지 10%만이 현재의 당면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두 해 동안 혈루증(血漏症)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와 고침을 받은 사건과 죽은 아이로 의 딸이 살아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고질병도 고쳐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 주시는 생명의 구주이심을 배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예수님께 간구한 회당장 아이로(21-24)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21)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들린 한 영혼을 고치시고 다시 바다 맞은편(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큰 무리가 대환영을 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병들고 영육 간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돕기 위해 바닷가에 서 계셨을 때 무리 가운데서 황급히 달려 나와 발아래 엎드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22) 그는 바로 회당장 아이로였습니다. ‘아이로’라는 뜻은 ‘깨운다, 밝힌다, 계몽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은 그가 율법으로 백성들을 깨우고 밝히려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엔 일반적으로 회당은 회당장, 핫잔(회당장 조수 역할), 랍비, 평신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보통 3명이었으며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관장하며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관리하면서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 감당했습니다. 또한 매주 학교를 운영하여 율법을 가르치며 동네에서 발생한 가벼운 문제들도 재판하였습니다. 회당장은 평신도들이 감당하였는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명예로운 직분이었습니다. 아이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나날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아이로의 가정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어졌습니다. 그것은 금이야 옥이야(金枝玉葉) 키우던 사랑스러운 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죽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딸은 12살 난 외동딸이었습니다.(눅8:42). 사람들이 보기에든 귀여운데 아버지 아이로에게는 이 딸이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들이 좋다고 아들타령을 하지만, 아이로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며 딸에 대해서 지극한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이로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섬기고 집에

돌아오면 딸이 '아빠'하고 부를 때 모든 피로가 싹 가시고 무한한 삶의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딸 야순이가 “아빠! 피곤하지?, 내가 안마해 줄까?” 하며 그 양증맞은 손으로 어깨를 주무를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그에게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시시각각(時時刻刻)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는 아이로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자식이 아파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려 간곡히 간구하였습니다.(23)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제발 와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제 어린 딸을 살려 주세요.”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간곡히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회당장으로서의 위신과 체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위신과 체면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아이로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게 된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만 하면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딸에 대한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은 그로 하여금 체면과 자의식과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아가 간곡히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양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있을 때 죄로 인해 시름시름 죽어 가는 한 영혼을 위해 주님께 나아가 애타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24b)

II.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25-34)

예수님이 아이로의 집을 향해 가지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 밀며 따라갔습니다.(24b) 그런데 무리 중에는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25) 혈루증(만성 하혈증)은 일종의 부인병으로서 부정한 병입니다.(레15:25-27). 여인이 열두 해 동안 병을 앓아보니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으나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돈만 허비하였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중하여졌습니다.(26) 이로 인해 여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인에게에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갖고 아들딸들을 낳아 키우며 남편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자 하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병 때문에 아름다움을 잃고 가정에 대한 꿈을 잃었습니다. 또한 재산도 잃고 인생에 대한 희망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 버렸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불신과 부정한 사람이라는 죄의식과 고독을 맛보면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해 주시고 중풍병자도 일어나 걷게 하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도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시고 고쳐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시름시름 죽어 가던 여인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

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리라.”(27,28) 이는 정말 큰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의식으로 인해 아이로와 같이 사람들 앞에 나아와 간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무리 가운데로 섞여 들어가 뒤로 와서 아무도 몰래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Just one touch). 앞에 나온 아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셔야 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특별히 와 주시지 않더라도 자신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와!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인은 사실 돈도 학벌도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이로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요청할 처지도 못 되었습니다. 병도 추한 유출병이라 드러내놓고 도움을 받기도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운명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적극적이고도 창조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의 원천, 즉 power source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살짝 터치만 해도 그 분의 능력이 자신에게 온전히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29)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녀의 병이 곧 나았습니다. 열두 해 동안 그 여인의 몸을 괴롭게 했던 병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은 병이 조금 호전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싹 나아 버렸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여인을 괴롭혀 왔던 혈루 근원(根源)이 곧 말랐습니다.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완벽하게 나았다는 의미입니다. 여인은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격으로 'Praise the Lord' 하고 외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래 행하였고 율법을 어기면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비벼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컸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인의 행동은 작고 보잘 것 없었지만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에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며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으로는 늘 의심하고 불신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할 때 어떤 고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11:22,2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 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인은 고침을 받은 후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몰래 빠져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와 믿음으로 손을 댄 것 등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며 주위를 둘러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31)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 행한 여인을 보려고 주위를 둘러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둘러보시다가 여

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 앞에 나아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았습니다.(33) 여인은 자의식과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의 추한 과거와 또한 자신에게 이루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에게 무엇이랴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 할지이다."**(34)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고백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행하였지만 몰래 행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였습니다.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서 예수님을 만진 것으로 인해 정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몰래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놀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둘째로,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만일 여인이 몰래 병 고침 받는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지 않을 때 여인의 믿음은 사며니즘적으로 되거나 신비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오늘날은 병 고침을 받거나 성격을 고치거나 가정이 평안하거나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 등 문제 해결만을 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며니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바른 관계성을 맺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문제도 자연히 해결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심으로 여인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딸(뒤가테르)은 여인을 친밀히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으며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에 비중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적극적이고도 역동적인 믿음 때문에 그녀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깊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있어서 다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재산 유무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여인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성경지식만 자랑했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곁에 모시고 다녔지만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믿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두 해나 혈루증을 앓아 온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우도록 그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 세계로 교회'(손현보 목사)가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지방 교회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곳은 정말 부산의 끝자락이고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20명 모이는 교회가 4,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목사님이 간증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습니다. 자신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안 될까?' 거기서 끝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되는 길을 생각하고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분은 항상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신자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교신자를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법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법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단순히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이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댄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번 어떤 사람은 30번, 또 가고 또 가고 또 갔습니다.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도끼를 들고 위협하는데도 또 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끈질기게 전도했더니 어느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한 해에 1,300명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그 목사님만 그런 믿음과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활활 불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매일 캠퍼스에 올라가서 전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캠퍼스에 못 나가면, 직장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배운 구호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전도, 100명!" 결국은 그 믿음대로 됩니다. 저는 우리 7부 교회가 올해는 더 부흥하여 반드시 50명 이상 주일예배 참석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길은 지금도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손을 못 잡으면 옷이라도 터치하면 됩니다. behind spirit. just one touch spirit.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블루 오션(blue ocean-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비유하는 표현)의 원조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인상 깊은 광고판이 보입니다. "Jesus loves you, 고려은단" 우리나라 최대 구향제와 비타민 C 제품을 생산하는 고려은단 회사 광고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조규철 회장은 본래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갔지만 담배를 끊지 못했던 골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는데 호주머니 속에 넣었던 담뱃갑이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는 충격을 받고 부끄러워서 담배를 끊고자 마음먹고 새벽기도 나가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자가 되어 가지고 담배도 못 끊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예수님께 나갔을 때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기업의 이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복음적인 광고를 하고 전 직원이 예배를 드리며 공장경영을 하였습니다. IMF때도 다른 기업은 인력을 감축하는데 오히려 인력을 50%나 더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매출도 늘고 직원들의 신뢰를 더 얻어서 건강한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어떤 모양으로든지 접촉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전달됩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력을 보유하고 계시는 하늘의 발전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

주님께 믿음의 코드를 쫓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영적 발전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능력을 끌어다 쓰도록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III.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34-43)

예수님은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이루신 믿음의 역사를 고백하도록 하심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리들과 아이로에게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여인과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35).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0.1%의 가능성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말은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장례식을 치를 준비나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딸이 죽지 않을까 불안과 초조로 마음 졸이던 회당장에게는 청천벽력(靑天霹靂)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딸이 살았을 때는 나을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과 허탈감이 몰려 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딸의 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께 대한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그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도 꺼 버리는 참으로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몰래 새치기한 여인에게 대한 원망과 여인의 긴 인생 소감(Lifetestimony)를 들으시느라고 지체하신 예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 아이로의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말입니까? “이제 끝났으니 이 분에게 부탁해도 소용없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이들의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참으로 모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들의 불신적인 말로 인해 아이로는 이제 끝없는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의 심연으로 굴러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이 아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년 간 암 환자를 치료해 온 의사가 이런 책을 발간했습니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그는 이 책에서 “암 환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에서 나오는 식욕부진에 따른 극심한 영양실조가 암 환자의 주된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암 환자가 암 때문이 아니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진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펜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절망에 이르게 하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이로는 두려움으로 인해 절망하고 믿음을 상실할 신앙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 말씀은 NIV영어 성경에는 Ignoring what they said 즉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소식을 가져온 그들의 말을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심기우기 전에 재빨리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역사를 간파하시고 두려움과 불신과 회의를 심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불신과 두려움을 심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두려움의 세력과 싸우라는 뜻입니다. "두려워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과 두려움을 심는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굳게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파하시고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가 아니면 믿음을 갖는가 하는 것에 따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두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두령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땅이더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사는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매뚜기 같더이다."(민13:27,28,32,33) 불신에 찬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그들의 목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어느 때까지 이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사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동요하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민13:30, 14:9).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와 갈렙을 심히 기뻐하시고 귀히 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마음 속에 사탄이 심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간교하게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교수님이나 선배나 친구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서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낙오하면 어떻게 할래. 빨리 속 좀 차려" 라고 속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시험이 닥치면 꼭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입시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취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살인적인 청년 실업을 앞에서 내가 과연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대학원생들에게는 실험과 논문이 잘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명퇴에 대한 두려움과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원을 개업한 원장님들은 학생들이 많이 올까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에게는 공통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양을 얻어서 일대일 성경을 공부하여 제자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대일 하고 있는 양이 잘 자라서 목동선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배가 조금만 아파도 암이 아닌가? 죽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집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이 위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勞心焦思) 두렵습니다. 어떤 분은 '과연 올해 여름수양회에 양을 데려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큰 두려움이 있는데 바로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심령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딱딱해 진다는 것입니다.

다. 현실 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일단 두려움에 휩싸이면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자꾸 절망적인 쪽으로 생각이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소심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어 쓸모없게 되어 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딤후1:7). 이사야 41: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였습니다. 계21: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행 제 1호입니다. 두려워 떨기를 잘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고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외치며 믿음으로 이 두려움의 세력과 싸워야 하겠습니다.

아이로에게 믿음을 심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이로의 집에는 환화하는 소리와 울며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며 슬퍼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없는 곳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절망과 허무와 슬픔과 체념이 지배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잠시 이별하는 슬픔은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39)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빛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불신하는 자들을 다 내어 보내시고 세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하셨습니다.(41) 예수님은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애야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탈리다(소녀야) 쿰(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아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아니스데미)'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17번 사용되었는데 그중에서 10번이 부활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환영(幻影)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도록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리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요한11:25,26).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가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앞에 보이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은 아이로의 딸이 유일합니다. 죽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혈루증도 고치시고 죽은 아이로의 딸도 살려 내실 수 있는 권능의 주가 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붙들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루증 앓은 여자와 아이로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순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므로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